

민주 지역위원장 인선 어떻게 돼가나

補選 상승세 타고 너도 나도 '입질'

민주당이 오는 10월에 공석 중인 지역위원장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 지역 10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에 누가 선임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부 영입·공모 통해 조직 재정비 무계 동구 박주선·서구 김영진 전의원 거론

◇방법 및 시기= 일단 중앙당은 오는 10월께 위원장을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그에 앞서 우선 이 달 중순부터 보름여 동안 16개 시·도당 및 249개 지역위원회 조직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 조직강화특별 위원회는 9월 중순 지역위원장을 새로 선임해야 할 사고지구당을 가려내고, 공모와 외부 영입과정을 거쳐 위원장 선임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거론되는 인사=현재 광주에서는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등 4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이 공석이다. 최근 이창용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동구의 경우 박주선 전 의원의 입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보선에서 조순형 고문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지역 위원장 입성을 위한 사전 포석에 아니냐는 분석을 냈었다.



정몽구 회장 속행공판 출두... 비자금 조성 및 횡령(특경법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7일 오후 속행공판을 위해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민선 4기 '2개월 지각 시동'

전남 지자체 조직개편안 갈등에 대규모 인사 내달 중순 마무리

조직개편안에 따른 의회와의 갈등 때문에 늦어진 전남도의 대규모 인사가 오는 9월 중순쯤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8~10월 제21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직개편 수정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관련 절차와 17~23일의 을지훈련때문에 모든 인사가 완료되려면 9월은 넘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남도가 7일부터 16일까지 자체 감사에 착수해 직원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 등록, 보건환경지도 단속 등 각종 인허가 업무와 공사계약 등이 감사대상이다.

'호남 출신 공무원' 차별 말라

곡성출신 한나라 이정현 부대변인 '전라도 비하' 들을때 마다 괴로워 수도권 단체장에 인사당첨책 요구



뒤하고 있다"며 "호남 출신 동직원들, 구청 직원들, 시·도청 직원들이 인사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인사당첨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호남 구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곡성이 고향인 이정현(사진)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수도권 단체장들의 호남지역 공무원에 대한 차별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특히 한나라당 출신 이효선 광명시장의 전라도 비하 망언과 한나라당의 수도권 자치단체장 싸움이 당선에 따른 호남 출신 공직자들의 불안감을 이끄는 등 높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수도권 단체장을 한나라당이 석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만해하는 수도권 호남출신 공무원들을 위해 안심시켜야 한다"며 "수도권 거주 호남 출신들의 투표성향이 바뀌면 그 바람이 서서히 호남 현지로 남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망인 전국 정당이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광주서구를 당원협의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 부대변인이 지난 6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거시기 좀 안 되겠니'란 글을 통해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불공정한 인사와 마인드가 호남 민의 마음을 싸늘하게 달아버리는데 한

그는 이어 "23년을 한나라당과 전진정당에서 일해 오면서 다 참고 견디어낼 수 있었지만 '전라도 놈'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인내하기 정말 힘들었다"고 그동안의 심정을 토로했다.

"盧대통령 세계박람회 유치 관심 크다"

정천용 박람회유치 상임부위원장 대통령 여수방문 추진 자신감 갖고 준비해야



인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외국인에게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남해, 고흥, 제주를 연결하는 고속페리 등의 해상교통 수단의 확충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천용(사진) 2012여수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도 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며 "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통령이 꼭 여수에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치에 실패할 경우 이민을 갈 각오로 열심히 할 생각"이라며 박람회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현재 구성되고 있는 중앙유치위 집행위와 사무국에 여수지역 출신 인물을 꼭 포함시켜 지역의 의견과 중앙의 의견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상임부위원장은 7일 여수시청 상 황실에서 열린 여수유치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박람회 추진에 자신감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기에 박람회 유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NGO대사이기도 한 정 상임부위원장은 "최근 모로코가 경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모로코는 작은 나라지만 유럽과 이슬람권, 아프리카 지역의 지지를 얻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박람회 유치를 위해 서는 현재 여수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그리고 제주도를 권역에 꼭 포함시켜 내국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Advertisement for '태양초 고추건조기' (Solar Chilli Drying Machine) by Juiyuil. Features a large green machine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drying chilies and other vegetables.

Advertisement for '산아상권' (Sana Sang-gwon) featuring various agricultural and construction equipment like tractors, pumps, and generator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products.